

담화와 인지, 제16권 1호, 2009년

## 생략적 발화의 화용적 기능

이 성 범 · 홍 승 진  
(서강대학교)

Lee, Sungbom and Hong, Seungjin. 2009. Functions of Elliptical Utterances: A Pragmatic Analysis. *Discourse and Cognition* 16.1, 63-82. Ellipsis has been one of the best studied and most intriguing subjects in syntax and semantics over the last forty years since Ross's seminal 1969 article. Although it has drawn keen and immense attention, it has remained largely unanswered why elliptical utterances are so frequently used in our daily conversation. Instead, the main focus of the ellipsis studies has been on questions such as how ellipsis is resolved, whether there is syntactic structure internal to the ellipsis site, and whether the identity requirement on ellipsis is syntactic or semantic.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plicate the reasons why ellipsis is prevalen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ll that gap. We explore what pragmatic and metapragmatic roles elliptical utterances can play and point out that they have important metapragmatic functions. Whether it is intrasentential or not, ellipsis can serve the fundamental communicative goals of maintaining a smooth conversation and carrying out risk management. Thus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one of the most central and long-overdue questions in the study of ellipsis, and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syntax and pragmatics. (Sogang University)

**Key words:** ellipsis, subsentential utterances, pragmatics, metapragmatics, recoverability, metapragmatic awareness, interpersonal goals of communication

### 1. 서론

본 연구는 생략적 발화의 화용적 및 상위화용적 기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해 왔듯이 자연 언어에서 생략은 매우 다양하게 일어난다. 언어보편적 현상이라고 믿어지는 생략 현상은 특정한 문법 범

주나 문장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언어학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그것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보다는 구조적 조건에 치중해 왔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생성 문법 초기의 Ross(1970)나 Hankamer(1971)는 생략을 일종의 표면구조적 삭제 현상으로 보고 생략전 구조와 생략후 구조를 변형 규칙으로 연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Lerner and Pinkal(1995)은 비교구문에서의 생략을 변형 결속으로 분석하고 있고, Frazier and Clifton(2005)은 생략의 통사적 구조를 정보 구조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생략이 구현되는 문법적 기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미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안승진(2005)에서도 인정하듯이 생략은 단순히 문장내의 구조적 현상이나 일치에 의한 삭제로만 볼 수 없고 문장 안에서 뿐 아니라 맥락을 통해 생략이 되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통사론적인 시각에서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Crystal(1997)은 “생략 현상은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Leech and Svartvik(2002)은 생략 현상을 “앞선 맥락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략된 정보는 맥락이나 문장 내에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략 현상은 회복가능성(recoverability)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청자는 생략된 표현을 들었을 때 화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략된 정보를 곧바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생략 현상의 동기를 찾는 분석에서는 생략을 주로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유발된 화용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대화에서 화자는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이고 말을 하려 하기 때문에 발화 맥락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거나 앞에서 언급된 것은 굳이 반복하지 않고 생략하여 발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원리만으로는 생략이 지니는 인간상호적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다. 생략은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지 않고서도 발화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화자의사의 전달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말의 쓰임에 대해 고려하는 상위화용적 수준의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 글에서는 생략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상위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생략의 유형

생략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생략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의 유무에 따라 생략을 크게 1)언어적 생략(linguistic ellipsis)과 2)맥락적 생략

(contextual ellipsis)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로, 언어적 생략이란 생략이 일어날 때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적 표현이 같은 문장 또는 담화 내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다음 (1)에서부터 (6)에서는 생략된 부분을 같은 문장 또는 담화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다:

- (1) Katie cried and we don't know why. [Sluicing]
- (2) Albert likes apples and Bill bananas. [Gapping]
- (3) Albert likes apples but Bill doesn't. [VP-ellipsis]
- (4) Katie can play three instruments, and Jenny can play four.  
[N'-ellipsis]
- (5) Albert ate more kimchi than Bill [Comparative ellipsis]
- (6) A: What did you say to Katie in the bus?  
B: Nothing. [Elliptical packing]

즉 각각의 예문은 다음의 가운데 줄표로 표시된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1') Katie cried and we don't know why ~~she~~cried.
- (2') Albert likes apples and Bill ~~likes~~ bananas.
- (3') Albert likes apples but Bill doesn't ~~like~~ apples.
- (4') Katie can play three instruments, and Jenny can play four ~~instruments~~.
- (5') Albert ate more kimchi than Bill ~~ate~~ kimchi.
- (6') A: What did you say to Katie in the bus?  
B: I ~~said~~ Nothing ~~to~~ Katie ~~in~~ the bus.

즉 생략이 일어나는 성분이나 그 구조는 매우 다양하지만 언어적 생략의 공통 점은 같은 문장이나 선행 문장에 이미 제시된 언어적 표현과의 의미적 관계가 성립될 때에만 생략이 일어난다. 따라서 언어적 생략은 언어외적인 요인의 도움 없이, 순전히 언어내적으로 생략된 요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화용적 추론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맥락적 생략이란 생략이 일어난 부분이 선행하는 문장이나 담화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 생략 현상이다. (예문 (8)과 (9)는 Hall(2008: 2)에서 인용):

- (7) ~~Would~~ you Like a coffee? [informal offer]
- (8)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를 보면서] ~~She~~is The editor. [deictic]

deletion]

(9) [와인 병을 꺼내 보이면서] ~~This wine is~~ From France.

[subsential fragment]

(10) ~~It Doesn't matter.~~ [interruptive subject deletion]

(11) Fire when ~~you are~~ ready.

(12) ~~What will happen~~ if I tell him the truth?

이런 예문에서 생략된 것을 찾으려면 발화가 일어난 맥락의 요소들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의 청자는 화자가 나에게 커피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화행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Hall(2008)의 지적대로 (8)이나 (9)는 담화 도입부에 나올 수 있는 발화로서 실제 일어나는 두드러진(salient) 사건이나 사물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10)의 경우도 화자와 청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즉 (7)부터 (12)의 예문들은 화용적 맥락의 도움이 없이는 생략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언어적 생략은 회복이 일어날 경우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없기 때문에 단일한 메시지의 회복이 가능하며, 생략된 문장은 논리적으로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라고 본다. 이런 종류의 생략은 생략을 가능케 하는 선행 표현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어의 경우 담화 도입부에는 올 수 없고, 그 문장 단독으로도 쓰일 수 없다. 언어적 생략에서 생략된 요소의 회복에는 통사적, 문법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동원되는데 이는 언어 능력을 이루는 각 모듈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반면에 맥락적 생략은 회복을 위해 언어외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 볼 의미보충(enrichment)이 일어나야 하고, 맥락에 따라 회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결정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맥락의 뒷받침이 있다는 전제하에 담화 도입부에도 올 수 있으며 발화 단독으로도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인지언어학적으로 이 과정은 각 언어 모듈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중심 언어처리 장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Fodor 198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언어적 생략과 맥락적 생략

| 언어적 생략                  | 맥락적 생략           |
|-------------------------|------------------|
| 문장이나 담화 내에 허가 표현이 있음    | 그런 명시적 허가 표현이 없음 |
| 담화 도입부에 쓰일 수 없음         | 담화 도입부에 쓰일 수 있음  |
| 단독으로 쓰일 수 없음            | 단독으로 쓰일 수 있음     |
| 비결정성 없음                 | 비결정성 높음          |
| 통사적, 의미적 지식이 필수적        | 화용적 의미보충 과정 필요   |
| text 또는 co-text의 역할이 중요 | context의 역할이 중요  |
| 회복은 진리조건과 연결됨           | 회복은 화용적 적절성과 연결됨 |
| 언어의 각 모듈에서 처리됨          | 중심 처리 장치에서 처리됨   |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생략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맥락적 생략 보다는 언어적 생략에 집중되어 왔고, 맥락적 생략은 제대로 다루어져 오지 않았다. 이 연구에선 언어적 생략 뿐 아니라 맥락적 생략에 대한 화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3장에서는 언어적 생략이 화용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4장에서는 맥락적 생략을 화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3. 언어적 생략

#### 3.1 Grice(1975)의 양의 격률 (Maxim of Quantity)

우선 Grice(1975)는 일반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자들 사이에 협조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화자들 사이에는 그들이 속해있는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서로 협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Grice(1975)는 협조의 원리에 대해 4가지의 하위 원리들을 설정하였고 이 원리들을 ‘격률(maxim)’이라고 부르고 있다. 격률에는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이 있다. 그리고 그는 발화된 문장을 문장 그대로의 의미(sentence meaning)인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화자가 의도한 의미(speaker meaning)인 ‘함축된 의미(what is implicated)’로 나눈다. Grice(1975)는 협조의 원리에 따른 격률들을 사용하여 함축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서 생략 현상은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단 Grice(1975)의 양의 격률 중 두 번째 하위 격률(Q2)인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정보를 말하지 마시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화자들 사이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유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은 생략하지 않은 문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충분한 양

의 정보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rice(1975)의 양의 격률에 의해서 어떠한 함축이 나올 수 있는지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예문 (14)는 최재희(1991, p.34)에서 인용)

- (13) a. Bill came in and he sat down.  
 b. Bill came in and he sat down.
- (14) a. 영수가 기분이 좋으면, 영수가 휘파람을 분다.  
 b. 영수가 기분이 좋으면, 영수가 휘파람을 분다.  
 c. 영수가 기분이 좋으면, 영수가 휘파람을 분다.  
 d. 영수가 휘파람을 분다, 영수가 기분이 좋으면.  
 e.\*영수가 휘파람을 분다, 영수가 기분이 좋으면.

(13a)와 비교해서 (13b)에서 후행절의 주어 'he'를 생략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Grice(1975)의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대화의 현재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보적이 되도록 말하십시오'라는 양의 격률 중 첫 번째 하위 격률(Q1)을 어긴 것이 아니다. Grice(1975)의 Q1에 따라 청자는 화자의 발화를 듣고 후행절의 생략된 주어 'Bill'로 해석한다. 따라서 Grice(1975)의 Q1의 원리에 따라 문장의 생략된 요소는 반복된 정보가 생략되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14b-d)에서와 같이 화자는 '영수가'라는 반복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청자는 양의 격률을 이용하여 생략된 문장을 들었을 때 선행절이나 후행절에 나와 있는 '영수가'를 듣고, 화자가 생략한 정보가 '영수가'임을 추론하여 이 발화에 대한 양의 함축을 찾아낸다. 그러나 (14e)의 경우는 (14b-d)와 마찬가지로 '영수가'라는 반복된 정보를 생략하였음에도 비문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Grice(1975)의 양의 격률을 따르면 (14e)도 생략이 가능하여 함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Grice(1975)의 이론으로 (14b-d)의 생략 현상은 설명 가능하지만 (14e)의 경우 비문이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14b-e)의 모든 경우에 생략이 가능해야 하는데 (14e)는 비문이 되어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Levinson(2000)의 I-원리를 사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3.2 Levinson(2000)의 I-원리

Levinson(2000)은 일반 대화 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을 그의 세 가지 원리 Q-, I-, M-원리를 가지고 설명한다. Levinson(2000: 184)

에 따르면, 그 중 생략 현상은 I-원리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원리는 Grice(1975)의 양의 격률 중 2번째 하위 격률(Q2)인 '대화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말하지 마시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즉, 화자는 가능한 필요한 만큼 적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원리는 또한 최소의 격률(maxim of minim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I-원리에 따라 화자는 가능한 적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의 발화를 듣고 가장 적절한 해석을 하기 위해 그 의미를 확장시켜야 한다. 청자의 이러한 노력을 규정하는 것을 보충 규칙(Enrichment Rule)이라고 부른다. I-원리는 '간단하게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화자가 말하지 않은 것은 대화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청자는 화자가 말하지 않았어도 그 의미를 보충하여 함축을 추론해 낸다는 것이다.

Levinson(2000)은 생략 현상을 I-원리에 따라 화자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하고 생략된 부분은 청자가 앞의 문맥을 보고 쉽게 추론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Levinson(2000)의 생략에 대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는 '함축한다' 라는 의미이다.)

- (15) A: "Which side got three goals?"  
 B: "Tottenham Hotspurs"  
 I +> Tottenham Hotspurs got three goals.
- (16) A: "They won't visit Mary's parents."  
 B: "Old grudge."  
 I +> They have old grudge against Mary's parents.

Levinson(2000)에 따르면 언어적 생략의 예인 (15)와 맥락적 생략의 예인 (16)의 경우, 생략된 부분은 이미 발화되었거나 문맥상 쉽게 추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의미하는 바를 청자가 보충하여 I-함축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17)-(18)의 경우와 같이 I-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들이 있다.

- (17) A: "엄마는 어디 가셨니?"  
 B: a. "시장에."  
    b. "시장에 가셨어."  
    c. "엄마는 시장에."  
    d. "엄마는 시장에 가셨어."
- (18) A: "Who called Sue?"  
 B: a. "John."  
    b. "John did."

- c. "John called."  
 d. "John called her."

생략된 문장인 (17a-c)와 (18a-c)는 Levinson(2000)의 I-원리에 따라 모두 I-함축을 불러 일으켜야한다. 즉, Levinson에 의하면 생략된 문장인 (17a-c)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인 (17d)와 같은 문장인 ‘엄마는 시장에 가셨어’라는 내용의 I-함축이 발생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18a-c)는 (18d)와 같은 내용인 ‘John called her’라는 함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17c)와 (18c)의 경우에는 모두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듣고 충분히 I-함축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된다. 따라서 Levinson(2000)의 I-원리로는 생략 현상의 함축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화자는 일반적으로 (17a,b,d)와 (18a,b,d)와 같은 세 종류의 문장을 모두 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a)라고 말할 때와 (b)라고 말할 때 그리고 (d)와 같은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논문 5장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각각의 의도에 차이가 있는데, Levinson(2000)의 I-원리로는 이런 각각의 함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Grice(1975)의 양의 격률(Quantity)과 Levinson(2000)의 I-원리만으로는 생략 현상의 화용적 기능을 모두 규정할 수 없다. 대신 주목할 점은 생략을 회복할 경우 진리 조건적 의미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분석하여 화자가 생략문을 선택할 때 화자의 의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왜 다른지 그리고 생략의 정도에 따라 화자의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는 5장에서 다루고 있다.

### 3.3 M-원리

생략된 문장은 문법적으로 모든 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완전한 즉, 생략이 되지 않은 문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표적인(marked)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용론에서 무표적인(unmarked) 표현은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반면, 무표적인 표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유표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것이라는 함축을 발생시킨다. Levinson(2000:138)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보여준다.

- (19) a. He stopped the car.  
 b. He caused the car to stop.



(19a)는 ‘자동차를 세웠다’라는 것을 표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표현 ‘stopped the car’를 사용했지만 (19b)는 ‘caused the car to stop’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방식으로 차를 세운 것이 아닌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차를 세웠다는 유표적인 표현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무표적인 표현과 유표적인 표현의 차이를 Levinson(2000)은 그의 M-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20) M-원리 (Levinson 2000:136)

화자가 어떤 유표적인 표현 M과 같은 의미 D를 지닌 무표적인 대안 U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표적인 표현 M이 들어 있는 “p”를 말했다면, 무표적 표현 U가 D의 보다 전형적인 부분집합 d를 가리키는 데 비해 유표적 표현 M은 d의 여집합  $\bar{d}$ 를 가리킨다.

Levinson(2000)에 따르면 (19a)의 ‘stopped the car’는 U이고 이것은 ‘차를 세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인 d를 가리킨다. 이와 달리 (19b)의 ‘caused the car to stop’은 유표적인 표현 M으로 이것은 D중에서 보다 전형적인 것을 가리키는 d부분을 제외한  $\bar{d}$ 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Levinson(2000)은 일반적인 것을 가리키는 무표적인 표현을 I-원리에 의한 I-함축으로 해석하고, 무표적인 표현 대신 유표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M-원리에 의한 M-함축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략 현상 역시 비생략 문장에 비해 유표적인 표현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생략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M-함축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략된 문장이 어떠한 M-함축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예문은 Nariyama(2006:6)로부터 인용한 것임):

- (21) a. It’s been a long time.
- b. It’s been a long time.
- (22) a. I don’t know.
- b. I dunno.

(21a)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무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21b)는 주어가 생략된 유표적인 표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Levinson(2000)의 M-원리에 따르면 (21b)는 (21a)와 다른 특이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21a)와 (21b)의 문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표적인 표현인 (21b)가 (21a)에 비해 그다지 특이하거나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없다. 무표적인 표현인

(21a)는 I-원리에 의해 ‘너와 내가 만난 지 오래 되었구나.’ 정도의 I-함축이 나올 수 있지만 (21b)는 예를 들어, ‘너와 내가 만난 후로 경과된 시간이 특이한 방식으로 지났구나’ 등의 (21a)의 함축과는 다른 특별한 함축이 발생해야 하는데 우리는 (21b)의 함축에서 별로 특별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21a)와 같은 의미만을 포함할 뿐이다. 또 다른 예로 (22a)는 비생략문으로 무표적인 표현임에 반해 (22b)는 생략문으로 유표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Levinson(2000)의 M-원리에 따라 (22b)는 (22a)와 다른 함축을 발생시켜야 한다. 하지만 (22b)에서 (22a)와는 다른 특별한 함축을 찾아낼 수가 없고 (22a)와 진리 조건적 의미가 동일한 함축만이 나올 뿐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Levinson(2000)의 I-원리나 M-원리라도 생략이 가지고 있는 화용적 함축을 찾아 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Grice(1975)나 Levinson(2000)의 원리로는 생략문의 함축을 단지 비생략문과 진리조건적 의미가 같은 정보적인 함축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자가 비생략문 대신 생략문을 사용함에는 다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음 5장에서는 생략 현상이 다른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 상위화용적으로 살펴보겠다.

#### 4. 맥락적 생략

##### 4.1 영어의 주어 생략문

생략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생략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경제성(economy)이나 의미적 일관성(coherence), 문체(style) 등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것들만이 생략이 일어나는 이유라면 Nariyama(2006)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23) a. I'd love a coffee.  
 b. \*I'd like a coffee.
- (24) a. ~~Would~~ you like a coffee?  
 b. \*~~Would~~ you love a coffee?

본동사가 love인 (23a)에서는 I'd의 생략이 자연스럽지만, 동사가 like인 (23b)에서는 I'd의 생략이 일어날 수 없다. 반면에 의문문에서는 본동사가 like인 (24a)가 생략이 자연스럽지만, love인 (24b)에서는 Would you의 생략이 부적절하다. 이와 유사하게 다음 (25a)에서도 의문문에서 수식어구가 long 일 때는 Are you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a while일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26a)에서는 수식어구가 a while일 때는 생략이 적절하지만 long일 때는 적절

하지 않다.

- (25) a. Are you gonna be long?  
b. \*Are you gonna be a while?
- (26) a. I'm gonna be a while.  
b. \*I'm gonna be long.

위와 같은 생략에서의 상보적 분포는 생략도 일정한 경제성만을 고려해서만 안 되며 보다 세부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런 관점에서 Nariyama(2006)는 주어가 생략되는 영어 구문에서의 생략이 갖는 의사소통적 동기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주어의 생략은 그 문장의 정보 내용 자체가 덜 결정적(*less determinate*) 이거나 화자가 그 내용에 대해 회피적일 경우 또는 화자의 신원을 감추거나 덜 두드러지게 하고 싶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Nariyama 2006, p.6). 이점은 5장에서 상위화용적 지각을 논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한다.

영어에서 주절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주어 생략문은 비생략문과 비교할 때 특별한 함축을 갖는다. 예를 들어 Nariyama(2006)는 (27a)는 (27b)에서 볼 수 없는 추론적 의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 (27) a. It's been a long time.  
b. It's been a long time.

즉 Nariyama(2006, p.6)에 의하면, (27a)는 (27b)에서 주어가 생략된 형태인데, 이는 단순히 문장의 축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7a)를 말하는 화자는 (27b)을 말할 때보다 청자에게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전달하게 된다고 한다. (27)의 경우 경제성은 큰 요인이 아니어서 경제성을 반영하는 발화의 속도에서 (27a)가 반드시 (27b)보다 빠르지 않고 (27b)를 빠르게 읽는 다고해서 (27a)의 의미와 같지 않다. 즉 (27)에서의 차이는 단순한 양이나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내용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음 (28)부터 (31)의 경우에서도 생략이 일어난 발화와 그렇지 않은 발화 사이에 전달되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다. (예문들은 Nariyama(2006)에서 인용한 것임.)

- (28) a. It doesn't matter.  
b. It doesn't matter.
- (29) a. I should've known better.  
b. I should have known better.

- (30) a. I've gotta go.  
 b. I've got to go.
- (31) a. I've got it.  
 b. I've got it.

Nariyama(2006)에 따르면 위의 a-예문들은 b-예문들에는 볼 수 없는 함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즉 b-예문들과는 달리 a-예문들은 공통적으로 대화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회피하거나(evasive), 물리치려는(dismissive)" 동기에서 비롯되어 청자로부터 말을 가로막으려는(interruptive) 의도를 엿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예문은 특유의 함축을 가질 수 있는데, (28a)는 생략된 주어가 가리키는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29a)는 후회가 되는 것에 대해 덜 책임감을 느끼거나 그 내용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30a)는 화자가 지금 가야 될 이유가 덜 분명하거나 밝힐 만하지 못하다는 점을, (31a)는 화자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점을 각각 함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함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지 그 함축의 전달 경로와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 Nariyama(2006)는 구체적인 이론적 언급 대신 관찰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어 'I've gotta go'와 같은 생략문은 화자가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다 할 대꾸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함축이 가능한지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우리는 이런 함축은 의사소통적 수준에서 작용되는 상위화용적 원리에 따른 상위화용적 함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4.2 미완문장(subsentential fragment)

Hall(2008)은 맥락적 생략에 대해 미완문장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Hall(2008)이 말하는 미완문장이란 담화 도입부에 나오는 생략문으로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 중 어느 부분이라도 생략될 수 있는 미완성의 조각 문장을 말한다. Hall(2008)이 제시한 미완문장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2) a. [중고차 판매원의 말] Only 10,000 miles. Like new.  
 b. THIS CAR HAS BEEN DRIVEN ONLY 10,000MILES. IT'S LIKE A NEW CAR.
- (33) a. Nice shirt.  
 b. THAT IS A NICE SHIRT./YOU ARE WEARING A NICE SHIRT.

Hall(2008)은 (32a)와 (33a)와 같은 미완문장으로부터 완전한 의미해석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유 의미보충(*free enrichment*)으로 설명한다. 위의 예들은 화용적 맥락의 도움이 없이는 생략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자는 처음 a-의 예문을 들었을 때 여러 개의 가능한 함축 중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문맥상 가장 두드러진 함축을 선택하여 그 의미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Sperber and Wilson(1886/1995)의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따라 생략된 문장을 들었을 때 청자는 문맥에 맞추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외축(*explicature*)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외축에 따라 화자가 의도한 함축을 찾아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Hall(2008)의 해석에는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그가 제안하는 자유 의미보충(*free enrichment*)은 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과생성(*overgeneration*)의 위험이 있다. 외축을 회복하는 과정은 대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맥락을 선택하여 그것에 적합한 외축을 회복시키고 이에 따라 함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가 어떤 맥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외축이 회복되고 다른 함축이 나온다. Hall(2008)은 청자가 그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맥락을 잘 찾아내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맥락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정도를 나누어 설명할 논리적인 방법이 없다. 또한 그가 주장했듯이 담화 도입부에 나오는 생략문은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두드러지는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과도하게 여러 개의 함축이 나올 위험이 있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의미 보충이 가능할 경우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Hall(2008)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그의 이론에 따라 생략된 문장을 의미 보충하여 외축을 찾아내면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문장과 외축이 같게 되어 결국에는 의미가 같은 문장이 된다. (32)의 예를 보면 생략문인 (32a)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외축은 (32b)와 같은 문장이 된다. 결국에는 (32a)와 (32b)의 두 문장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즉, 생략된 문장을 사용한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외축의 형성과정에서 생략문이 갖는 특유의 화용적 의미가 사라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앞의 Nariyama(2006)의 설명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생략된 문장은 비생략문과 다른 종류의 함축을 불러일으킨다. 생략된 문장을 완전한 문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보적인 차이점은 없지만 생략문은 비생략문에서는 볼 수 없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주는 상위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의미보충을 통해 생략문의 빈 자리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우더라도 그 결과 얻어진 복원된 문장은 그 맥락에서 원래 화자가 발화할 수도 있었던 비생략문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늘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할 때 다음과 같이 생략문을 사용할 수 있다.

(34) Typical.

물론 이 상황에서 화자는 (34)의 생략문 대신 완전한 문장인 (35)를 선택할 수도 있다.

(35) That behavior is typical of him.

Hall(2008)은 (34)와 같은 미완문장적 발화(subsentential utterance)도 자유 의미보충에 의해 (35)와 같은 논리 형식을 복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35)가 (34)를 복원한 것이라고 할 때 처음 발화 상황에서 (34)를 발화하는 것과 (35)를 발화하는 것은 진리조건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사람의 그런 행동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감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34)는 (35)보다 훨씬 화자의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톤이 강하며 (35)는 보다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기술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차이는 의미론적 차이나 화용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상위화용적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말하는 방식에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어법 중 보다 특이한 것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것에 비해 화자가 특이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어법 사용에서 청자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는 일종의 상위화용적 지각 표시(metapragmatic awareness indicator)를 구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생략 현상의 함축을 상위화용적 시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5. 상위화용적 지각

화자는 대화나 담화에서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나 상대방에 대한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그 의도를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 한국어 예문에서 (36a)와 (36b), (36c)에 나타는 화자의 의도는 청자에게 전화를 받으라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는 상이하다는 것을 그의 발화에 나타난 언어적인 요소 등으로 알 수 있다.

(36) a. “전화 좀 받아 줄 수 있어요?”

b. “전화 왔잖아.”

c. “전화!”

(36a)-(36c)는 모두 ‘화자는 청자에게 전화를 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의 함축을 갖는다. 하지만 (36a)는 이 발화에 나타난 언어적인 요소들에 의해 다른 발화에서는 볼 수 없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상위화용적 지각(*metapragmatic awareness*)을 나타내고 있다. 즉 (36a)는 ‘화자는 청자에게 전화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데 있어서 예의바르고 삼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상위화용적인 함축이 나온다. 이렇듯 상위화용적 지각은 대화자 사이에 예의를 표하거나 위계질서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연대감 또는 적대감, 혹은 친밀감이나 거리감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상위화용적인 지각을 나타내기 위해 화자는 발화에 언어학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Verschueren*(1999)은 상위화용적 지각 표시(*metapragmatic awareness indicator*)라고 부른다. 위에서 예를 든 (36a)의 경우에는 존대어라는 상위화용적 지각 표시를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예의바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 생략 현상은 비생략된 문장과 의미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이를 전달할 때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갖는 태도나 배려 등 상위화용적 지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상위화용적 지각 표시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생략을 사용하는 의도는 화자 자신이 말할 때의 노력을 줄이고 청자에게 생략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화자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때에는 그만큼 청자에게 듣는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자에게도 기다려야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화자가 생략된 문장의 형태로 청자에게 이야기 했을 때에는 청자는 문맥에 따라 화자가 무엇을 생략했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청자는 화자의 메시지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받게 된다.

- (37) a. 선희가 책을 읽으면, 민수는 책을 뺏는다.  
       b. 선희가 책을 읽으면, 민수는 책을 뺏는다.
- (38) a. I caught fish, Bill cooked fish, and Jane ate fish.  
       b. I caught fish, Bill cooked fish, and Jane ate fish.

(37b)와 (38b)의 예와 같이 화자는 반복된 정보인 목적어를 생략하여 청자에게 목적어를 듣는 시간과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따라서 청자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생략은 발화의 신속성만을 위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략된 문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친밀감이나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 (39)와 (40)의 예는 문장 내에서가 아닌 담화 상에서 생략된 의미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함축을 찾아낼 수 있는 생략 현상이다.

- (39) A: “리모콘 어디 있니?”  
 B: a. “탁자 위에.”  
     b. “탁자 위에 있어.”  
     c. “리모콘은 탁자 위에 있어.”  
     d.\*“리모콘은 탁자 위에.”
- (40) A: “Who broke the window?”  
 B: a. “Mike.”  
     b. “Mike did.”  
     c. “Mike broke the window.”  
     d.\*“Mike broke.”

(39a-c)와 (40a-c)는 각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모두 가능한 것들이다. 이 중 (39a)와 (40a)는 공유된 모든 정보를 생략한 대답이고, (39b)와 (40b)는 문장의 한 요소만 생략한 것이다. 그리고 (39c)와 (40c)는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다. 이 세 가지 가능한 대답 중 (39a-b)와 (40a-b)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b)의 문장 형태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39a)와 (40a)의 경우는 생략 가능한 모든 것을 생략한 문장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일종의 친밀감이나 연대감을 나타낸다. (39a)나 (40a)의 대답은 손윗사람이나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략된 표현은 주로 친구들이나 편한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다. Nariyama(2006)는 이에 대해 생략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더 많이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39b)와 (40b)와 같은 경우에는 생략된 문장이지만 일상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이것은 또한 앞에서 보았던 청자의 문장 처리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화자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9d)와 (40d)의 생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이 두 예문의 공통점은 생략 가능한 주어가 발화되었을 때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성분은 생략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어의 경우인 (39d)를 살펴보면, SOV의 구조에서 동사가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박승윤(1989)에서도 주장했듯이 문장의 마지막 성분을 빼면 그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문장의 마지막 성분은 생략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자는 청자에게 불완전한 느낌을 갖게 하는 구조를 말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구조인 (39b)를 발화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를 나타내는 상위화용적 함축을 갖는다. (39a)와 (39b)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에서 이루어진 생략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39a)는 부사구로서 독립적인 문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39b)는 pro-drop 언어인 한국어에서 주어 생략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한 문



장의 맨 뒤에 동사가 나옴으로써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영어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40a)와 (40b)의 생략은 가능하지만 (40d)의 생략은 불가능하다. 영어는 SVO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40d)와 같이 타동사를 가진 문장이 목적어를 생략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 청자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된다. 때문에 화자는 청자에 대한 배려로 청자가 생략된 목적어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목적어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40a)의 경우는 새로운 정보이자 독립된 명사구로서 나머지 부분인 공유된 동사와 목적어의 생략이 가능하고, (40b)는 'did'가 동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broke' 뿐만 아니라 'the window'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안정감 있는 문장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현상은 또한 예의를 나타내는 상위화용적 지각 표시로도 기능한다. Nariyama(2006)의 예를 보면, 때에 따라 화자는 청자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주어들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주어가 무엇인지 숨기거나 애매모호하게 만든다고 한다. Nariyama(2006)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1) (I/you/we/he/they/...'ve/s) got to have a coffee.

(41)의 예에서 주어는 그 상황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화자가 의도한 주어는 'I'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가 'I'를 생략한데에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커피를 마셔야겠다고 'I'를 넣어서 말하게 되면 내가 커피를 마셔야 할 정도로 피곤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비난조로 들릴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소연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어들을 생략하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대화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실패나 오해 등의 위험을 줄이고 대화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상호인간적인 목적(interpersonal goal)을 가진 상위화용적 함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의사소통은 화용론에서 다루는 정보적 목적(informative goal)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화용적인 측면의 상호인간적인 목적까지도 추구한다. Lee(2007)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상호인간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대화가 중도에서 갑자기 끝난다든지 일방적으로 대화를 무시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는지 하는 대화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가 중요해지며, 이와 동시에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감정적 차원에서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감정 표현(emotion expression)이 중요해지는데, 상위화용론적 지각 표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생략은 단순히 통사적 화용적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말의 쓰임에 대해 언급하는 차원, 즉 상위화용적 차원의 현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생략은 개념적(ideational)이거나 명제적(propositional) 현상에 머무는 단순한 구조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인간적 동기에서 기인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담당하는 상위화용적 동기에 입각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략 현상은 단순히 화자의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한 현상이 아니라 실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상위화용적 지각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생략 현상은 단순히 다른 방식의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이 아니라 상호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현상인 것이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생략 현상의 화용적 기능과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분석을 알아보았다. 그 동안의 생략 현상에 대한 분석들은 단순히 화자의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한 현상이라고 치부되어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생략 현상을 다룰 때에는 Grice(1975)의 양의 격률에 의한 양의 함축이나 Levinson(2000)의 I-원리에 의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복원하는 I-함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생략 표현을 유표적인 것으로 보아 M-원리에 의한 M-함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즉 생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이런 화용론적인 입장의 원리들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또 생략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아 낼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Hall(2008)이 제안하는 의미보충 역시 생략이 갖는 보다 높은 차원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생략 현상은 청자에게 빠르고 쉽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의사소통적 동기와 함께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발현되어 발생하는 상위화용적 지각 현상이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생략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은 화자가 청자를 배려하는 상위화용적인 함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생략 현상은 생략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 화자는 청자에게 친밀감이나 유대감 혹은 예의를 표시할 수 있는 상위화용적 지각 표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생략 현상은 여러 가지 정보 전달 방식 중의 하나가 아니라 상호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상위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승윤. 1989. 기능문법론. 서울: 한신문화사.
- 안승신. 2005. 영어 명사구에서의 생략에 관한 연구. 언어 이론과 그 응용. 서울: 한국문화사.
- 최재희. 1991.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탑출판사.
- Crystal, David. 199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dor, Jerry. 1983. *The modularity of mind*. Cambridge, Mass.: MIT Press.
- Frazier, Lynn, and Charles Clifton Jr. 2005. The syntax-discourse divide: Processing ellipsis. *Syntax* 8(2): 121-174.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ll, Alison. 2008. *Subsentential utterances, ellipsis, and pragmatic enrichment*. ms. University College London.
- Hankamer, Jorge. 1971. *Constraints on deletion in syntax*. Ph.D. thesis, Yale University.
- Lee, Sungbom. 2007. Metapragmatics of speech and its interactions with pragmatic inferences. *Discourse and Cognition* 14.2, 117-136.
- Leech, Geoffrey, and Jan Svartvik, 2002.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 Lerner, Jean-Yves, and Manfred Pinkal. 1995. Comparative ellipsis and variable binding. In *The Proceedings of SALT 5*, 222 - 236. Ithaca: Cornell Linguistics Club Publication.
- Levinson, Stephen C.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 MIT Press.
- Merchant, Jason. 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Studies in Theoretical Linguistics, 1)
- Nariyama, Shigeko. 2006. Pragmatic information extraction from subject ellipsis in informal English. *Proceedings of the 3rd Workshop on Scalable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ew York: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Progovac, Ljiljana, Kate Paesani, Eugenia Casielles, and Ellen Barton. eds. 2006. *The syntax of non-sentential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oss, John R. 1969. Gapping and the order of constituents. In Manfred Bierwisch and Karl E.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86/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Stainton, Rob. 1994. Using non-sentences: An application of relevance theory. *Pragmatics and Cognition* 2.2: 269-284.
- Stainton, Rob. 2006. *Words and thoughts: Subsentences, ellipsi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erschueren, Jef. 1999. Understanding pragmatics. London: Arnold.

Sungbom Lee  
Department of English  
Sogang University  
1 Shinsu-dong, Mapo-gu  
Seoul 121-742, Korea  
Phone: +82-2-705-8294  
Fax: +82-2-715-0705  
E-mail: sblee@sogang.ac.kr

Seungjin Hong  
Department of English  
Sogang University  
1 Shinsu-dong, Mapo-gu  
Seoul 121-742, Korea  
Phone: +82-2-705-8290  
Fax: +82-2-715-0705  
E-mail: hsjin1017@sogang.ac.kr

이 논문은 2009년 2월 28일 투고 완료되어  
2009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9년 4월 14일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